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4. 14 ~ 2024. 5. 4 제298호

22대 총선 앞둔 기독교계, '기독교 정치 참여 플랫폼'... '부정선거 방지 대책' 제안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전문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과 공정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독교 청년 단체인 '행동하는 크리스천'(행크)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 기독교 정치 참여 플랫폼 VFC(Vote for Christ) 프로젝트를 개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망이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에 취약하며, 각종 선거관련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돼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부정선거 없는 4.10총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공개적으로 선관위에 요구했다.

행크는 플랫폼 VFC(voteforchrist.kr)에서 254개 지역구의 출마 후보에 대한 프로

필 정보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주요 법안 발의 이력이나 후보자 동향 A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또 구체적으로 해당 후보의 시민단체 활동 내용과 함께 기독교 5대 약법으로 분류되어 온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혁명 ▲성경적 가족의 해체 ▲낙태나 안락사 등의 생명 파괴 ▲표현과 신앙의 자유 억압 ▲부모 친권 침해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지 여부를 VFC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기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4.10총선을 앞두고 몇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완전 차단을 위해 선관위와 대법원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수기총이 요구한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표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으로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 인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 분류기 보안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교회연론회는 '22대 총선을 '정치개혁'으로 만들자는'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흔들리는 국회를 혁파하기 위해 ▲잘못된 지도자나 자격없는 사람을 걸러내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은 선택하지 않으며 ▲말썽의 소지 있는 사전투표보다 본 선거에 참여해 국민들의 정확한 표심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장해진·김성옥 선교사 (제주 삼도교회)

교회개척선교사로, 제주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바람과 돌. 이색적인 오름과 산 능선을 따라 걸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푸르른 바다 풍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푸릇한 굴나무. 많은 사람이 찾는 이곳, 제주다.

어떤 이는 여행으로, 어떤 이는 쉼으로,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찾아 이 땅을 밟는다. 8년 전, 장해진·김성옥 선교사도 제주 땅을 밟았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이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 오늘도 제주를 구석구석 누비는 장해진·김성옥 선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1)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예외는 없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다. "너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그 일은 원래 없었던 일로 해주마.", "이건 죄치곤 너무 작운데... 무시해도 좋겠군." 이런 말씀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다. 벌써 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죄는 두려움

과 수치심을 준다. 죄는 또 더 많은 죄를 이끌어 온다.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과 그 위의 만물까지 저주로 고통받게 되었다. 모든 짐승, 바다 생물, 새 종류는 물론 땅 자체가 모두 저주의 영향 아래 놓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 저주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로마서 8:22, KLB)이라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은 출산의 고통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의 고통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땀과 불의와 비참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흠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창세기 3:18-19, AEB)

가시와 엉겅퀴는 그것이 실제이든 상징이든 간에 사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람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고통 속에서 투쟁하도록 만들 것이며, 사람의 한평생이란 결국 슬픔과 고통의 여정이 될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 가장 비참

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 바로 '죽음'이었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투르크메니스탄, 자유 지수 세계 최하위



▲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의 빵 가게. 제공: WMM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빵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탄두루’라는 화덕에서 갓 구워낸 수북이 쌓인 ‘난(Nan)’은 배고픈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힘차게 내딛는 이들의 발걸음이 자유롭게 날개를 달으면 좋으련만, 올해도 이 나라의 자유 지수는 세계 최하위

다. 세계 최악 중에 최악 북한보다 더 낮은 자유 지수의 투르크메니스탄은 ‘2024 세계자유보고서’에서 100점 만점 중 2점을 얻어 3점인 북한의 뒷줄에 섰다.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15년 장기집권에 이어 그의 아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을 물려받았다. 이들은 우상화 정책으로 금박을 입힌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임 대통령의 기마 동상을 수도 한복판에 세우는 등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게 하고 있다. 이 땅이 더욱 진리를 소망하게 되고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하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33) [GPNEWS]

이란 청년들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 높아... 지금이 복음 전파할 적기

이란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어, 지금이 복음 전파할 적기를 맞고 있다고 한 이란 청년 선교단체가 밝혔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란을 대상으로 한 청년 선교단체 얼라이브 미니스트리(Iran Alive Ministries, IAM)의 릴리 메시(Lily Meschi)는 “제도, 정치, 정부는 이슬람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민주주의를 언급할 때 젊은이들은 즉시 종교를 떠올린다.”며 현재 이란 청년들은 종교처럼 보이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 인구의 60% 이상이 30세 미만이다. 지난 2년간의 시위를 통해 이란의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1979년에 건국된 이란의 이슬람공화국의 세대처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희망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IAM에 따르면, 지금 이란은 역사적인 시기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등 새로운 세대는 종교적 수사법과 종교와 유사한 모든 것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뉴에이지 영성에 열려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IAM의 메시는 “그들은 기독교를 단지 또 다른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전했다.

즉, 이란의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고 메시는 말했다. 이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IAM은 기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위성 TV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와 기타 채널을 사용해 기술에 정통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자 훈련,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메시는 “지금의 기독교인 모두



출처: Unsplash의 Omid Armin

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긴급한 시기”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시는 끝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운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교회 리더들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이러한 젊은 세대가 이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지난 세대보다 더욱 강력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유엔난민기구, 민주콩고 동부 폭력 사태 파괴적 수준 경고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이 지역이 파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혔다. 최근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북키부 마시시 지역의 사케 마을에서 폭력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무차별 폭격 등을 피해 피난을 떠나, 고마시와 그 주변에 다양한 난민촌이 들어서고 있다. 북키부, 남키부, 이투리주에서 총 570만 명의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으로 전락했다.

민주콩고의 영혼들이 환난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과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반군들의 악행이 그치게 하사 속히 민주콩고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소서.

브라질 동성 결혼 20% 증가... 2022년 1만 1000건 등록

브라질의 동성 간 결혼 건수가 2021~2022년 사이 20% 증가하며 이성 결혼 증가율의 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2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성 결혼 등록 건수는 1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성 간 결혼 증가율 4%의 5배에 해당한다.

인구의 약 9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브라질 국민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별하여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탄의 간계에 교회가 깨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韓 자살 시도 응급실행 43%... 30세 미만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우리나라 환자의 43%가 청소년과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등 30세 미만이 약 43%를 차지했으며 자살 시도자의 31.2%는 음주 상태였다. 자살 시도자의 38.2%는 정신적 문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다음세대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슬픔과 어려운 마음으로 사로잡아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깨닫게 하사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GPNEWS]

2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4월 1일 ~ 5월 30일

-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기간** 2024년 4월 1일 ~ 5월 30일 중 24시간 단위로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은 제외)
-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010-9440-4365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기도24·365 홈페이지(prayer24365.org)에서 확인하세요.

찾아가는 기도24·365 열방의 파수꾼 모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순종의 첫걸음, 기도24·365.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의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될 이 자리에 모든 열방의 파수꾼들을 초대합니다!

전주 4월 15일(월) / 오전10시~오후3시
주소망교회(전주시 완산구 숯대로 5, 2층)

광주 4월 16일(화) / 오전10시~오후3시
예수마을교회(광주 북구 호동로86)

문의: 010-7917-4641, 010-387-24365



반 기독교 사상의 스코틀랜드 증오범죄법, 누구나 '증오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4월 1일 발효된 증오범죄법이 증오범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주관적이며, 법적용 지역 역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경찰이 기소할 수 있다며, 관련 전문가가 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의 데이비스 로버트슨 목사(스코츠키르크장로교회, Scots Kirk Presbyterian Church)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의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 법은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급진 이교주의로 향하게 하는 등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문제는 증오나 편견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가중범죄'로 간주하게 되는데, '증오를 부추긴다'는 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스코틀랜드 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증오범죄로 인지한 경우, 어떤 행위나 발언이 증오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자나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행위가 어떤 사회집단을 향한 악의나 악감정에 의한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경찰관이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기소할 수 있으며,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범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을 통한 사상 단속의 범위가 '스코틀랜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스코틀랜드에서 출간됐다고 여겨져 '증오범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황당한 법적용 범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버트슨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성인용품점에서 나를 증오범죄로 익명 신고하면 호주에서 쓴 글 때문에 나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다양한 사회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여론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영국세속주의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피터테첼재단(Peter Tachell Foundation)·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반대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이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로버트슨 목사가 기고한 칼럼의 요약이다.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법의 중점은 기독교 반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도 증오가 나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증오를 금지하는 스코틀랜드 정부법안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세상 이치가 흔히 그렇듯 실제 상황은 보이는 것과 다소 다르다. 3년 전 통과된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 법안이 그렇다.

이 법안은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현재 수석장관인 험자 유서프(Humza Yousaf)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의 법안은 4월 1일에 발효됐다. 이는 이 정부가 최근에 통과시킨 가장 가혹하고도 권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은 우선 증오나 편견이 있다고 간주된 모든 행위를 '가중범죄'로 간주한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호받는 특성을 갖는 집단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욕적 행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형사범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증오를 부추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다. 스코틀랜드 경찰의 실무적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증오범죄로 인지했다면, 그 행위는 증오범죄로 간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경찰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사회집단을 향한 전체적·부분적인 악의나 악감정에 따라 동기부여가 됐다고 이해한 모든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로 인식된 사람이나 경찰관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도 증오범죄로 기소돼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당히 파격적인 범규정이다.

해리포터 작가로 알려진 J. K.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은 성전환과 같은 성혁명적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람이다. 만일 그녀가 소셜 미디어 엑스(X)에서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고 적는다면 증오범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 무함마드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독교인 설교자나 결혼이 남녀 사이의 일이라고 믿는다는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최근 일부 절도 사건을 비롯한 '낮은 수준의' 범죄를 다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증오범죄 신고는 전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코틀랜



▲ 발효된 증오범죄법을 반대하기 위해 의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수백 명의 스코틀랜드 시민들. 출처: 페이스북 계정 Scottish Family Party 캡처

드 경찰은 '증오괴물' 만화를 내놓는 등 반(反)증오 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이 증오괴물은 좌절하고 분노한 어떤 사람들이 남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화풀이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들기도 했다. 즉, 그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뿌리 깊은 감정과 백인 남성특권의식이 합쳐진 자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경찰은 백인 노동계층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이 증오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이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그들은 분명 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률은 일관성이나 정의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너무나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가는 2단계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특정 집단에게는 '보호받는' 상태를 부여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공격받게끔 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 일일이면 증오범죄, 여성은 해당 안돼

이 법은 스코틀랜드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며 심지어 아이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학교 안내서에 적힌 설명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전부 경찰에 신고돼야 한다. 저널리스트 짐 스펜스(Jim Spence)는 비즈니스 잡지 큐리어(Courier)에 기고한 글에서 스코틀랜드가 조만간 "누군가는 증오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2단계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면 범죄행위가 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건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법률에 따르면 성별은 보호받는 특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동부의 던디(Dundee)에 있는 에버테이대학교(University of Abertay) 스튜어트 웨이트(Stuart Watton) 교수(범죄학과)는 이렇게 경고한다. "강사들은 일부 학생이 동의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그저 표현하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심지어 여성에게 음경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징계받은 건 물론이고 모든 신고사항이 경찰에 의해 기록되면서 범죄기록까지 남은 리사 키오(Lisa Keogh) 같은 학생도 있었다. 이번 일은 여러 대학에 오싹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스코틀랜드 전역에 제3자신고센터(Third Party Reporting Centres)를 설치해 사람들이 누구나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신고센터는 글래스고(Glasgow)의 성인용품점과 노스버윅(North Berwick)의 버섯농장 및 웨스트던바턴셔(West Dunbartonshire)의 철거된 사무실 건물도 포함한다.

게다가 코미디언과 배우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간지 더 헤럴드(The Herald)는 경찰이 '위험·모욕적'이라고 보는 자료를 제작한 사람들을 추적하게끔 권장하는 경찰 훈련에 대해 소개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트랜스젠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기소될 수 있다.

사상 단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오범죄법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전송·상영·재생활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보호받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는 농담을 반복하면 증오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집에서 '증

오'를 표현해도 신고당할 수 있다. 짐 스펜스가 지적한 대로 "이는 인간 감정과 정서와 행동을 현실에서 지울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 정치체급이 만든 재앙의 레시피"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과대망상은 '스코틀랜드적 가치'의 낙원에서 법령을 통해 증오를 박멸할 수 있다고 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려 한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스코틀랜드 내에서 출간됐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누군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서 나를 증오범죄로 익명 신고하면 나는 호주에서 쓴 글 때문에 호주에서 고소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영국세속주의협회·피터테첼재단·아담스미스연구소 등을 포함해 의외의 단체들이 함께 동맹으로 뭉쳤다. 스코틀랜드 가톨릭 주교들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슬프지만 스코틀랜드 의회의 저명한 기독교인 일부가 당 원내총무의 뜻에 동조해 경솔하고도 권위주의적인 이번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크리스마스에 요리될) 칠면조가 크리스마스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한때 '성경 민족의 땅'으로 묘사된 스코틀랜드는 이제 한 국가가 기독교적 뿌리에서 벗어나 기독교 이전에 있던 일종의 '진보' 이교주의로 되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됐다. 이 나라는 갈수록 권위주의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불의한 '이상한 사람'(basket case)이 되고 있다.(모든 '이상한 사람'에게 사과드리니 날 신고하지 마시길 바란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길!

[GP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한 영혼을 교회로 세우는 장해진·김성옥 선교사 (제주 삼도교회)

• 1면에 이어

장해진·김성옥 선교사는 티앤알미션(T&R Mission Community)이라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였다. 티앤알미션은 원형교회로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복음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선교단체였다. 2010년 2월 설립된 이 단체는 인천에서 국제선교교회를 개척하고, 이후 국내 지역교회들을 '말씀기도학교', '원형교회회복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섬겼다. 2014년에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제자양육교재들을 제작해 섬겼으나 그해 말,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국제선교교회 성도들은 작은 공동체로, 티앤알미션의 선교사들은 각각 불러주신 곳으로 모두 흩어졌다. 이들은 지금 교회개척선교사로 국내외 해외의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개척선교사로 제주에 오다

- 어떻게 제주도로 오게 되셨나요?
김성옥(이하 김): "국제선교교회

육지에서 전도하면 보통 거절을 하기 일쑤인데, 이분들은 거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발 일을 하고 계시던 아저씨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빠서 싫어할 법도 한데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마음 받아 좋구나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누구도 마음 들어 개간해 보지 못한 땅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제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2016년 2월에 내려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팀을 이루어 가면 좋겠다는 선교사님들의 권면이 있었어요. 마침 장해진 선교사님도 지내던 곳에서 떠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도하고 저와 합류하게 됐어요."

-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장해진(이하 장): "제주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 제주대학교에서 전도하는 모습. 제공: 김성옥 선교사

를 섬기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14년 11월에 교회가 작은 여러 개 교회로 흩어지게 됐어요. 저도 서울 세검정 지역을 얼마 동안 섬기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받게 됐어요.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인이 누굴까?' 기도하다가 국내에서 교회나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그런 곳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던 제주도가 생각났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겠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육지와 떨어져 있고, 제가 소속된 공동체도 없어지게 되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2015년 9월에 제주도로 정탐 여행을 오게 됐어요."

- 정탐한 제주는 어땠나요?

김: "당시 제주의 대학교들과 교회가 별로 없다고 들었던 서쪽의 어느 한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가졌어요. 제주도 역사나 문화, 방언도 배웠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곳도 없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외부 사람을 경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곳에 온 첫 해에 한 가정에서 연결됐어요. 애월 지역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과 복음을 나눴어요. 이후에는 기도 모임을 이어갔어요. 집사님 남편과 여동생도 모임에 함께 하게 됐어요. 이후 아이들도 복음 나누는 모임이 시작되면서 온가족이 함께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당시 코로나 시기가여서 모임 제한 인원수가 넘었어요. 장소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근처에 집사님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집사님 언니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으신데도 장소를 제공해주셨죠. 그리고 비자발적이지만 모임에도 참석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작년부터 언니분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복음을 나누며 기도모임까지 이어져

- 놀라운 일이네요. 집사님 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김: "집사님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도 믿고 조상도 믿고 용왕신도 믿는다고 하셨어요.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싫어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니에게는 90세 할머니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미스터리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가능하다고 말해도 집사님 언니는 그래도 90세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사람 말 믿을 거 못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셨어요. 언니분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장: "애월에 있는 가정 모임에서 저희는 갖고 있던 모든 교재를 가지고 총체적인 복음과 교회론까지 함께 나눴어요. 벌써 8년이니까요. 지금까지 반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 가정의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이제 20살이 됐어요."

- 이런 모임을 하는 분들이 또 있나요?

김: "2017년 정도에 흩어진 교회의 한 성도님의 여동생이 제주도로 오셨어요. 이 가정과도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척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애월 모임도, 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따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삼도교회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중에는 애월, 서귀포 사계의 가정, 저희 성도님과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교재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분과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김용의, 규장) 책을 정독하기도 하고, 국제선교교회에서 만든 교재들, 느낌이 기도책자, 또 NTM이라는 선교단체의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책 등으로 나눠요. 복음을 나누며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



제공: 김성옥 선교사

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된 삶이라고 모두 고백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혼돈되고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번 시도해 보고 잘 하지 않죠. 이분들도 처음엔 그랬는데, 모임을 계속하면서 진리를 삶에 적용해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연합함은 있지만 복음밖에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 "교회개척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왔잖아요. 주님이 한 영혼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복음으로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한 사람의 열매가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 복음과 기도로 서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르심 때문에 영혼들과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분들과 이렇게 길게 교제할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 때 한 2개월 모임을 쉬었는데 이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임 시간이 호흠과 같은데 언제 시작하냐고요. 아이들이 커가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왜 주중에 따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미 정해진 모임이라며 태도를 정하고 복음 앞에서 세워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섬기는 게 부르심이라고 생각돼요."

생각보다 길어진 제주도 생활

- 제주도에서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장: "처음 와서 한 일은 캠퍼스 전도였어요. 제주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캠퍼스라고 생각했어요. 제주대에서도 한 자매를 만나서 기도 모임하고, 한라대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 모임도 했어요. 우리가 꿈꾼 건 캠퍼스 안에 자생적으로 예배하면서 살아남은 교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여러 이유로 함께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 캠퍼스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김: "제주도로 전도여행이나 수련회를 오는 팀들이 있어요. 매년 이들을 섬기면서 제주에 있는 한국교회 역사나 제주도의 영적 상황에 대해 나누고 기도하기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기도로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어요. 제주 토박이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순종해왔어요. 지금 제주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육지 출신이 많은데, 제주 분들 안에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 앞에서는 영광을 보고 싶어요."

-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김: "처음에 제주도에 오면 육지에는 올라갈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기도신학교 수업과 풀뿌리 교회개척 학교를 매주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매주 인천으로 가야 했어요. 매주 인천을 오가는 재정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염두가 나질 않아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지체가 '예수생명의 DNA를 가진 교회를 세우는데 이 정도 대가 지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줬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때까지 써보지 못했던 지경의 믿음을 써보게 됐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 현장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여럿이 함께 살 때는 한 명에게 집중할 일이 없었는데 돌밖에 없으니까 서로의 연합함이나 단점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만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재정도 관계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다.' '한 사람이라도 세우기 위해 연합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왔던 것 같아요."

장: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은 전도예요. 성옥 선교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등산인데 '산에 갈래? 전도 할래?' 물어보면 산에 간다고 할 정도예요. 중학교 앞에서, 대학교에서 전도하고, 시장을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전도해요. 일주일에 6일간 전도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매번 진짜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G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애월 지역 모임에 방문한 인도 현지인, 선교사와 함께. 제공: 김성옥 선교사



선교 통신

“33년의 순종, 안식년 끝나도 전도자로 살아갈 것”

가나에 온 지 어느덧 33년이 되고 보니 지내온 숫자가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선교를 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자신이 깎이고 낮아지고, 훈련받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 큰 그림에 점 하나 찍는 마음으로 시작된 33년의 기간 동안 고개만 떨구어지고 눈에 나타나 보이는 뚜렷하게 잡히고 보이는 것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동역자들의 기도와 놀라운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곳곳에 사람을 세우시고 서부 아프리카 곳곳에 무슬림 확장을 막도록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어렵고 부끄러운 마음들은 숨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연결된 사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아닌 현지인 사역자들과 바통 터치를 하고 현지인들에 의해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3개 지역의 선교센터와 사택도 모두 이양하여 현지인 사역자들에 의해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홀로서기로 몸부림치는 저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과 도



▲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나의 아이. © 복음기도신문

움과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

33년 전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을 때, 아프리카 가나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이미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땅이라 가나에 자리한 기독교는 토착민들의 정서와 풍습이 더 진하게 가미되어 순수한 복음보다는 온갖 종파가 뒤섞인 예배로 기독교가 맞는지 헷갈리곤 했다.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터득한 잔꾀가 말씀 순수하게 믿기보다는 살아남는 도구와 방패 역할을 했다. 더욱

이 적절한 거짓말은 애교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여건에 뜨겁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걸모습에 나는 살아갈수록 더 헷갈리고 힘들고 상처를 받으며, 믿었던 성도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에 젖을 때가 많았다.

가나에서 정상적인 가정은 정말 드물었다. 문란해 보이는 성생활의 타협으로 언제나 그 상처와 후유증은 어린이들의 몫이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제 삶에선 복음을 이용한 삶의 껍데기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교육이 훨씬 쉽고 힘이 빠지지 않았을지 돌아보게도 된다. 그런 가나 선교 33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게 이뤄졌음을 또 찬양한다.

오래도록 함께 기도하고 생활했던 후임 현지인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은퇴를 바라보게 하시니 이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직은 홀로서기가 힘들고 완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그 또한 기도하게 될 나의 몫으로 여긴다.

어찌할 바 몰랐던 서부 아프리카 각 나라를 돌아보는 일에 손걸

어붙이고 나선 후원자들을 통하여 열약한 불어권을 도우며 세우도록 인도하셨다. 또 밀고 내려오는 무슬림 확장을 저지하며 그 힘을 약하게 또 방향을 돌리게 하신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어린이 꽃잔치를 열 수 있게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부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소원하고 특별한 사랑을 쏟으신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배우고 싶지만 어려운 환경에 포기하고 앉아 있던 아이들을 위하여 유치원을 짓고, 학교 교실을 짓고, 끊임없이 교사들을 후원하여, 즐거운 배움의 장터를 마련하신 귀한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어려움 가운데서 센터를 건립하였을 때 여기저기서 센터를 탐하는 현지인들로 고비가 있었다. 땅과 건물 모두를 선교사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모두 단체 이름으로 등록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선교 사역이 끝나면 다 당신들 거라는 단서가 확실하게 붙자 별로 따지지 않았다. IMF 체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서 선교후원

이 줄어들자, 오히려 빵 하나 계산한 판 몇 푼 안 되지만 봉투를 들고 와서 어려워도 가나를 떠나지 말라며 선교사를 격려하고 붙잡기도 하며 많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감동의 시간도 있었다.

처음 선교사로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목에 서다 보니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는다. 선교행정은 여전히 계속 이어져 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하는 부담감은 안식년이 끝나도 전도자로 살아감이 당연하고 축복임을 부인할 수 없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앞에 오직 복음이 살아있는 자의 행진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 [GPNEWS]

강승천 선교사(아프리카 가나)

복음의 능력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요일 2:29)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기꺼이 복종을 선택한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다. 사실 거듭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히 고백한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패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갈망하며, 거듭난 사람의 본성과 성향과 언행과 습관은 거룩함을 지향한다. 때로는 넘어지거나 결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걸음을 걷는다. 당신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이념과 사상은 한계를 만날 때, 그 값어치가 드러난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현실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필자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셜 미디어(SNS)의 게시물을 봐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들 게시물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장과 소식이 하루 수백 수천 개의 게시물로 나열되어 있다.

적지 않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현실은 언제나 눈에 커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이전의 화제와 관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절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발견한 믿음의 고백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글쓴이나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념과 사상은 조건과 상황, 그리고 경험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만 해도 청년 때가졌던 많은 이념과 사상을 지금은 동의하지 못한다. 철없던 시절, 환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쏟아내던 생각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이 쓸모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기 때문이다.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시행착오’보다는 ‘착오시행’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땅 전문가인 지인이 있다. 한때 돈만 생기면 크고 작은 전국의 땅을 구입하곤 했다는 분이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다. 그저 자영업을 하며 노후대비를 위해 그 일을 했다는 지인도 이미 그 일을 멈추고 보유하고 있던 땅을 정리하고 있다. 때로는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선교지인 땅끝에 헌금하고 허비하듯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다.

무엇이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

을 바꾸었을까?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죽일듯이 대립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떤 세대는 특정 집단에 콘크리트 지지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적어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옳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나의 판단인가? 아니면 그 이념적 지지집단의 실상인가?

땅 전문가인 지인의 말 가운데 크게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의 풍광이 계절에 따라 달라보인다고 말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툭 던졌다. “그래서 땅은 겨울에 사라고 합니다.” 영. 그게 무슨 말인가?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그 땅의 실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여름에는 비만 오면 확 자라는 나무와 풀들로 인해 어떤 곳이든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그 땅의 원래 모습은 드러난다. 그래서 겨울에 땅을 사면 후회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렇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한계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을 함께 경험해야 그의 진면모가 드러난다.

그 이념과 사상이 충돌받을 때, 한계를 경험할 때도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가? 누가 들어도 공감하고 바람직한 사상과 이념이 강한 찬바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그 목표와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다면 진리이다.

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설교의 한 말씀을 기억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GPNEWS]

C.K.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2)

교회의 터,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시 11:3) 내 인생을 버려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 터’는 어떤 것인가. 만약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돈을 잃거나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끝장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에게로 달려 가리라.” 아멘. 교회는 과연 어느 터에 서 있는가. 세상 여론이나 사상, 철학, 교권에서 있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날, 통째로 망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주님은 교회를 그런 터에 세운 적이 없다. 교회의 터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르심의 비전의 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부르

심의 목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나, 조직이 잘 돼 있느냐, 수준 높게 생활하느냐는 교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된 생명력 있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각 지체에 흘러가고 모든 지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 된 성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을 이기



일러스트=고은혜

고 죄악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론이다. 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치어 살다가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목표도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한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 부자 관원이 영생을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허망한 재물에 종노릇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눈물겹게 최선을 다해도 중심이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구경도 못한다고 하셨

다. 주님은 돈인지 영생인지 내 마음에 주소를 정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게 내 자신의 마음이다.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가 안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즈

Jakin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과기도미디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GPM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고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즈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주님! 믿음으로 파를 잘 썰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만난 후 나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여러 가지 신앙 훈련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살겠노라며 세상 한복판에 살았지만 쉽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 문제로 시작된 가정의 어려운 환경에 웃음은 사라지고 각자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살 뿐이었다. 갈수록 더한 남편의 건강 악화로 우리 가정은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두 자녀는 다음세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헤브론원형학교로 가게 됐다. 나는 복음 선교관 학교를 섬기며 해외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이곳은 내가 보기에 아프리카 환경보다는 낫고, 선교 사님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곳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보게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일러스트=고은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다니는 헤브론원형학교 교육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곳에서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세워 가셨다. 학교에서 나는 주방을 섬기고 있다. 사실 나는 주방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 모든 주방일은 믿음을 필요로 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칼질이였다. 얇게 썰어야 하는 파는 내 뜻대로 안되었

다. 어떤 때는 파를 썰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다. 처음엔 웃음으로 넘기며 나중엔 잘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노력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 평소와 다르게 주방에 많은 분들이 섬기러 오셨다. 한 분이 파를 썰는 나에게 웃으며 “파가 이게 뭐예요.”라고 말했다. 처음 들은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은 말에 마음이 어려웠다. 내색은 안했지만 섬섬한 마음과 불편함이 파를 썰는 내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마음에서 울리는 차분한 음성이 들렸다.

“다 잘하고 싶니?” 나는 단번에 ‘네~’ 하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다 잘 안 해도 괜찮아.’라고 대답해 주셨다. 코끝이 찡하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학교에서 만난 많은 교육 선교사들의 삶이 참 귀했다. 그리고 닦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기도로 부르짖는 선생님들, 멋진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이었다. 나도 내 자리에서 잘 섬기며 잘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닌 나의 노력과 최선을 보게 하셨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매 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셨다. 지금도 나의 파 썰는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뭐예요.”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네, 더 잘 썰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한다. ‘주님! 믿음으로 잘 썰게 도와주세요.’ [GPNEWS]

김성희

데이터로 보는 세계



2024 세계 자유 최하위 국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 세계 210개 국가 중 가장 자유가 제한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내 영토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월 말 발표한 ‘2024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한 결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3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티베트가 0점, 시리아와 남수단이 1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러시아의 크림반도가 2점을 받았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년 연속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했다.

자유를 잃은 국가들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세계 자유 지수 최하위 국가 순위

순위	국가	총점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1위	나고르노-카라바흐	-3	-3	0
2위	티베트	0	-2	2
3위	남수단	1	-3	4
4위	시리아	1	-3	4
5위	크림반도	2	-2	4
6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2	-1	3
7위	투르크메니스탄	2	0	2
8위	에리트레아	3	1	2
9위	북한	3	0	3
10위	서사하라	4	-3	7
11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5	1	4
12위	적도기니	5	0	5
13위	타지키스탄	5	0	5
14위	아프가니스탄	6	1	5
15위	수단	6	-3	9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과 아프리카서 집단 폭동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난달 26일 산케이신문을 인용, 자

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이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일부만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긴장

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데다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파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한계 수위

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폭동은 4년간 약 1200만 달러의 임금이 북한 노동자

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송금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 단초가 됐다. [GPNEWS]

北, 당국에 부정적인 말하면 보위부 끌려가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달 26일 RFA가 전했다.

함경북도 부령읍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1월 초 친구 3명과 개인 매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정은 생일(1/8)을 맞아 공급된 선물 당

과류를 받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고 ‘앞으로 태양이 365개가 되면 아이들이 1년 내 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다음 날 보위부가 그를 체포해갔고 직장에는 “그를 찾지 마라.”고 통보했다. 이에 소식통은 “2달 넘게 보위부에 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풀려 나온 건 정말 기적”이라며 “그의 누

나의 항의와 함께 그가 10년 만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고, 중요 건설을 맡은 돌격대에서 성실히 일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매체의 또 다른 소식통은 “친구가 서너 명 있는 자리에서 ‘왜 우리는 생활이 계속 쪼들리는가.’라고 말했다가 불과 며칠이 안 되어 보위부

도원에게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 몇 년간 말을 조심해라, 길거리에 암행어사가 다닌다 등 주의하라는 신호가 있었지만 설마하고 생각했는데 충격이었다.”며 “특별하지 않은 말도 조심해야 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놀랍다.”고 강조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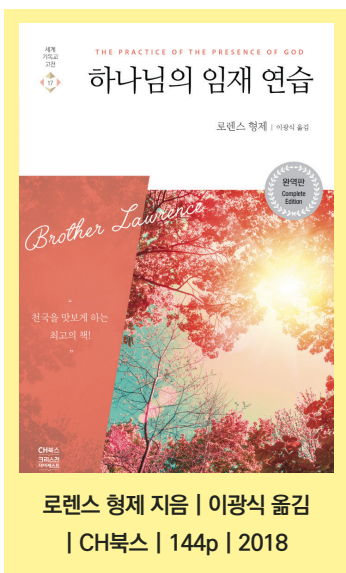


▲ 중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 데일리NK 캡처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재할까. 최근 사역지를 옮기고 이사를 하며 눈에 보이는 많은 필요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어린 자녀들을 낳은 학교로 보내놓고 홀로 집을 정리하며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드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언제나 내 영혼 안에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 주셔야 했다.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간절하고 시급한 내 영혼의 참된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 그 주님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조금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작은 소책

자 한 권을 읽게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읽혀지고 전해져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이였다.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50세의 늦은 나이에 평신도 형제의 신분으로 가르멜회의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맡아 일하며 살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된 일을 아주 싫어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방식이라 여기며 자기 죄로 인해 참회하는 시간으로 지나야 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일상이 지속되었고 마침내 그는 돌파구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알아내려 애쓰는" 자기 상태를 진단하며 자기에 대해 염려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였고 그

분만을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잃은 자이거나 구원받은 자이거나,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위해 행동하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인생의 어떤 특별한 지점이 아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는 믿음의 시도를 통해 연습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줄곧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죄에 대하여서나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하여 몰두하고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정죄의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그리

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쉽고 빠르게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 자기를 향한 사랑은 믿음을 가장하여 복음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노력과 최선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그곳에는 결코 참된 안식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한 자기 추구하고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다른 복음을 쫓는 본성을 돌이켜 다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로렌스 형제 안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일상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참된 변화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마침내 끝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실체가 되는 일 말이다. [GPNEWS]

박혜인 선교사



선교하는 마음으로 입대... "주님, 가장 힘든 곳으로 배치해주세요"

훈련소 연병장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 슬픔, 기대 등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가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다(창 45:5).

나는 1중대 1소대에 배치 받았다. 같은 소대원은 총원 77명. 이중 99년생 형님은 세 분이 있었다. 배정받은 이층 침대는 뭔가 이상했다. 사다리도 없었고 침대 옆 난간도 없었다. 내 침대만 그랬다. 조교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다리가 없으니 알아서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침대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턱걸이, 덤스(가슴 운동) 등을 해야 했고 배와 가슴이 쓸렸다. 여러번 건의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3일차가 되니 가슴과 배가 멍자국으로 물들었다. 그제서야 침대 옆에 밟고 올라가도록 책상 의자를 하나 놔주셨다. 그래도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배정받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들 중 누군가 힘들어야 한다면 내가 제일 힘든 곳으로 가길 소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이루어주셨다.

옆 침대에 있던 한 친구는 UDT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소대원들에게도 다 찾아가 이름과 직업, 기도 제목 등을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말과 명분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중 우리 담담 소대장님이 지시했다. "너희 서로 최대한 빨리 친해져라. 동기가 살던 곳, 직업, 몸무게 등등 다 알고 있어야." 그 명령을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친해지기 작전에 들어갔다.

"소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를 동안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나를 제외한 76명 전원을 찾아가 이름, 소대 번호, 직업, 사는 곳, 취미 등을 물어보고 교제하고 노트에 작성했다. 그러면서 나를 소개했다. 나는 선교사라고.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적어가는 거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프면 나를 찾아오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부터 나는 소대에서 선교사님 혹은 선교사 형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소대원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야기 기도 꽤 많이 나왔다. 나는 자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에 궁

금증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다수 있었다. 왜 성경을 읽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군대에서 전달해 주는 인터넷 편지 받으셨습니까? 그 편지를 왜 읽습니까? 그 편지가 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조, 타락, 심판, 사랑, 구원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갔다. 호세아서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서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려준 것 같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반응이 나온다. "계속 듣다가는 나에게 신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성경 나중에 빌려주세요. 읽어보고 싶어요." 혹은 말이 없는 싸늘해진 분위기 등등... 여러 반응들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다.

한 기독교인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상부에 보고했더니 가해자를 유급시키거나 서로 화해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내 생각

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신 분이시라고, 도리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등 내 생각을 들려주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서 용서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한 소대원이 찾아와서 자기 격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귀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진다. 주님이 내 속에서 순종한 모습인데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GPNEWS]

호세아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3. 13 ~ 4. 2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선희 김애심 김원모 김혜신 문인홍 박경희 박성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윤미자 이동엽 이보희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옥희 정옥영 정요한 조복형 조형광 최성희 최영석 최점욱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삼척물대동산교회 샘물교회 시흥교회 서원교회교정사역팀 순회선교단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인천큰사랑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헤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